



중국 정부가 지정한 24개의 역사문화도시 가운데 하나인 취안저우시 전경. 황하문명의 발상지이자 수천 년에 달하는 오랜 역사를 품고 있는 도시에는 매년 국내외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다.

〈취안저우시 제공〉

다문화 자산으로 고대 번영 꿈꾸는 황하문명 발상지



동아시아 문화도시를 가다

1 中 취안저우(泉州·북건성)

지난해 8월 중국은 2014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푸젠성(福建省) 남쪽의 항구도시 취안저우시(泉州市)를 선정했다. 상하이(上海)로 결정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는 반전이였다. 우리에게 낯선 도시에 불과한 취안저우, 어떤 문화와 매력을 갖고 있기에 광범한 역사를 지닌 도시들을 제치고 중국의 첫 번째 동아시아 문화도시라는 영예를 거머쥐었을까. 그러나 그 영광을 차지하기까지는 쉬운 일은 아니었다.

1차 예선은 19개 도시들과 경쟁을 했으며 2차 본선 때는 역사문화도시로 널리 알려진 10개의 도시들과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했다. 중국 문화부가 선정한 15명의 심사위원들은 도시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열 가지의 항목들을 선정기준으로 삼았다. 취안저우는 이 항목 중 지속적인 문화유산의 보존 노력과 계획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한다.

인구 850만 명(2011년 기준)의 취안저우시는 이미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택받은 한국의 광주시와 일본의 요코하마시와 함께 올 해 동안 문화교류 협력시대를 열며 3국의 문화융성 실현을 위한 대장정에 들어갔다.

알려지기로는 취안저우는 중국 국무원에서 지정한 24개의 역사문화도시 가운데 하나다. 황하문명의 발상지이며 수천년에 달하는 오랜 역사를 품고있는 중국답게 많은 도시가 역사문화도시라는 이름으로 관광객을 유혹한다. 그러나 취안저우는 다른 도시처럼 화려한 볼거리가 적어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편이다.

취안저우로 들어가는 관문은 샤먼(廈門)공항이다. 샤먼은 푸젠성 중에서 가장 경제력이 높은 도시다. 샤먼, 취안저우, 그리고 성도(省都)인 푸저우(福州)를 푸젠성 3대도시로 일컫는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샤먼에서 한

시간을 달려 복직자인 취안저우에 도착했다. 12월 하순임에도 우리나라 가을 날씨 정도의 서늘함을 느낄 수 있었다. 해변에서는 11월에도 수영할 수 있다고 한다.

취안저우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질을 열정적이고 개방적이며 포용력이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특성의 형성 배경에는 오랜 역사적 맥락이 존재한다.

취안저우는 고대 '해상 실크로드'의 기점이며 유네스코 지정 첫 번째 '세계 다원문화 전시 센터'로서 '세계 종교박물관'으로 알려져 있다. 송

했음을 알 수 있다.

취안저우의 자랑거리 가운데 하나인 취안저우 해외교통사 박물관에서 관광인 덩위링 박사를 만났다. 그는 10세기 이후 아랍과 페르시아 상인들이 대거 이 땅에 정착할 때 온 아랍상인의 후손이다. 그는 취안저우는 고려와 가장 활발한 해상교역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시급함을 강조했다. 고려는 태생적으로 해상경역으로 일어난 나라다. 태조 왕건은 해상호족세력 출신이었다.

그런데 태조의 성장에는 특정한 뿌리가 있었다. 그 뿌리가 9세기 해상왕국을 건설한 장보고다. 비록 851년에 그 해상왕국은 무너졌지만 장보고에 의해 구축된 동북아 3국의 해상네트워크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날로 활성화 되어 고려로 계승된 셈이다. 덩 관장은 해상왕 장보고 선단의 주요 교역지가 바로 취안저우라고 말했다.

이 땅에는 지금도 곳곳에 고려의 흔적이 남아있다. 고려항, 고려촌(고려마을), 고려길(까오리지에)이라는 지명이 존재한다. 또 고려채(까오리차이)라는 보쌈 모양의 야채요리가 유명하다.

〈박선정 동아시아문화도시 추진기획단장〉

中 정부 지정 24개 문화도시중 하나

고대 해상실크로드 기점, 최대 항구

고려항·고려촌 등 고려 흔적 고스란이

(宋), 원(元)대를 거쳐 명(明)대까지 아프리카, 아랍, 인도, 고려, 일본과 활발한 해상교역이 이루어졌다. 특히 송, 원나라 때는 '동방 제1항구'로 불릴 만큼 세계 100여개의 국가 및 지역과 무역거래를 했다. 당시 마르코 폴로는 유명한 '동방견문록'에서 자이툰(Zaitun : 당시 취안저우의 표기)을 세계 최대의 항구도시로 유럽에 소개했다.

'고려사(高麗史)'에 따르면 송나라 때 고려로 간 상인 중에 취안저우 출신이 가장 많았다고 한다. 100년 동안 송나라로부터 약 90차례 4500명의 상인들이 오갔는데 대부분이 취안저우, 양저우(揚州) 등 남방에서 활동하는 사(私)무역업자 들이었다.

또 명나라 때는 취안저우의 많은 장인들이 일본으로 진출해서 현지 사람들과 함께 류큐왕국(琉球王國)의 건설에 공헌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로 비춰볼 때 취안저우는 일찍이 한중일 3국의 교류에서 중요한 역할을



고대 '해상 실크로드'의 기점으로 수세기 동안 동서양 문물의 중심지 역할을 해 온 취안저우시 전경.



취안저우 해외교통사박물관에 전시된 기독교 천사상.

‘만’가지 알찬정보와 ‘물’만난 살림꾼들의 ‘상’상초월 비법!

살림9단의 만물상

매주 일요일 밤 11시 MC김원희 | 안문숙 이광기 김한석 김민희

이 프로그램은 www.tvchosun.com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